

이차돈 순교유적과 유물에 대한 고찰

| 김태형 림(Lim)박물관 |

I. 머리말

한국불교사 그 중 신라불교사를 논할 때 그 출발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異次頓이다.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첫 번째 순교자인 이차돈은 순교를 통해 종교적 가치를 지키고자 해서 ‘聖師’ 로까지 추앙받고 있다.

이차돈과 관련한 기록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해동고승전』, 경북 선산 도리사 <아도화상 사적비(이하 사적비)>¹ 및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차돈 순교비(이하 순교비)> 등에 그의 생애가 비교적 자세히 남아 있다.

아울러 그의 유적과 관련하여 고려 천태종 開創祖인 대각국사 義天은 분황사 등 경주 일원을 순례하면서 남긴 시를 통해 이차돈의 사당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해동고승전』의 저자인 覺訓은 이 책에서 이차돈의 묘가 당시까지 현존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당과 묘와 같은 이차돈의 유적이 있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까지 그와 관련된 연구와 선양사업 등이 있어왔지만 유적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떤 실증적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이차돈의 순교를 역사적 사실이 아닌 설화로만 치부하려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 1 1655년 제작,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桃李寺,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01호.

특히 『삼국유사』 등에서 그의 장례기록과 함께 火葬이 아닌 봉분을 조성한 묘를 썼음을 밝히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의 묘와 그를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했다는 사당 혹은 ‘자추사’의 위치나 그 존재에 대해 제각각의 說들만이 난무하고 있다.²

이번 연구가 비록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또한 하나의 설에 불과하겠지만, 이를 통해 그동안 정설로 알려져 왔던 諸說들의 문제점을 되짚어 봄으로서 이차돈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그의 묘역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이 이루어져 묘역의 성역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II. 염축사인(이차돈)의 순교와 장례

이차돈과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불교가 공인 과정에서 이차돈의 역할이나 기타 정치 역학적 관점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외에 이차돈의 이름과 관련하여 국문학적 측면의 연구도 있었지만 그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으로 그나마 <이차돈 순교비> 비문에 대한 해독과 단편적인 소개가 고작이다.

이차돈의 무덤과 관련된 기록으로 『삼국유사』 등이 있지만 그의 무덤을 직접 참배하고 그 현장을 다녀간 기록은 앞서 언급한 의천과 각훈이 남긴 시와 기록이 있다. 그 중 고려 천태종을 개창한 대각국사 의천이 남긴 시가 『東文選』 권제 19에 ‘厭鬻舍人廟’라는 제목으로 남아있다.

천 리를 돌아와 사인을 찾으니 / 千里歸來問舍人
 청산을 홀로 서서 몇 봄을 보내었나 / 靑山獨立幾經春
 만일 말세에 불법 행하기 어려운 때 만나면 / 若逢末世難行法
 나도 또한 그대같이 몸을 아끼지 않으리 / 我亦如君不惜身

대각국사는 宋에서 귀국한 후 전국을 다니며 經疏를 수집하기 위해 개성을 떠

² 여러 가설 들 중에 가장 광범위하게 퍼진 내용은 바로 이차돈의 추모 사찰과 관련된 내용으로 『삼국유사』의 자추사와 이차돈 순교비의 건립 장소에 관련된 내용이다. 경주지역 향토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자추사를 이두식으로 해석하여 백률사=자추사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순교비와 관련해서는 발견장소를 건립 장소로 확정하면서 백률사=자추사라는 논리를 정설로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나 전국을 순례하던 중 경주에 도착하여 분황사를 찾아 원효의 공덕을 찬탄하며 분향제례를 올렸고³, 이어 이차돈의 묘를 찾아 분향하고 이때의 감회를 시로 남겨 놓았다.

11세기 후반 대각국사가 이차돈의 사당을 참배할 당시와 각훈이 『해동고승전』을 쓴 13세기 초반 해도 이 묘는 어느 정도 관리가 이루어졌고, 분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가 비록 멸망을 하였지만 당시 경주에 남아있던 수많은 불적들은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황룡사의 경우 고려조에서도 왕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아 각종 재난으로 손괴가 되면 수시로 복구가 행해졌음은 『고려사』 등 여러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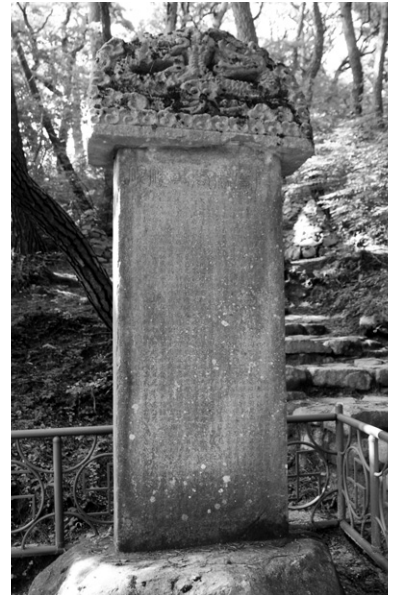
그러나 1238년 몽고군의 침략으로 인해 황룡사는 물론 경주의 수많은 사찰들이 모두 파괴되면서 刺楸寺를 비롯한 이차돈의 묘역은 물론 이를 관리하고 참배하던 민중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 지금은 여러 說과 아득한 전설만이 전해지고 있다.

1. 이차돈의 순교

『삼국유사』, 『삼국사기』, 『해동고승전』 등을 비롯하여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이차돈순교비>⁴ (도 1), 경북 선산 도리사 <아도화상 사적비> (도 2) 등에서 이차돈의 순교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도 1



도 2

도 1
 <이차돈순교비>, 818년,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도 2
 <아도화상사적비>, 1655년,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桃李寺, 경북도유형문화재 제291호

³ 『대각국사문집』 권제 16.

⁴ 이 비에 대해 <栢律寺石幢記> 또는 <異次頓供養碑> 등으로 불리지만 본고에서는 이들 명칭보다는 이 비가 이차돈의 순교를 다룬 최초의 비이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유일무이한 유물이므로 <이차돈 순교비(이하 순교비)>로 부르코자 한다.

불교의 공인이라는 사건의 중심에선 이차돈은 결국 참수형에 처해지는데 이 때(법흥왕 14년(527)) 일어난 異蹟, 즉 ‘白乳의 湧出’, 그 기이함은 당시 대단한 충격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前略) 이에 여러 신하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여 황망스레 맹세하고 손으로 동쪽과 서쪽을 가리키니 왕은 사인을 불러 꾸짖었다. 사인은 얼굴빛이 변하여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왕이 크게 노하여 이를 베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니 有司는 그를 묶어 官衙로 데리고 갔다. 사인은 맹세를 했다. 獄吏가 그의 목을 베자, 흰 젖이 한 길이나 솟아올랐으며(鄉傳에는 이렇게 말했다. 사인손인이 맹세하기를, “大聖法王께서 불교를 일으키려 하시므로 내가 身命을 돌아보지 않고 세상 인연을 버리니 하늘에서는 상서를 내려 두루 백성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했다. 이에 그의 머리는 날아가 金剛山 마루에 떨어졌다고 한다), 하늘은 사방이 어두워 저녁의 빛을 감추고 땅이 진동하고 비가 똑똑 떨어졌다. 임금은 슬퍼하여 눈물이 袞龍袍를 적시고 재상들은 근심하여 진땀이 蟬冕에까지 흘렀다. 甘露이 갑자기 말라서 물고기와 자라가 다투어 뛰고 곧은 나무가 저절로 부러져서 원숭이들이 떼 지어 울었다.(後略)⁵

『삼국사기』에서는 『삼국유사』와 큰 차이는 없이 그의 참형 순간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 내용이 金大問의 『鷄林雜傳』에 의거하였음을 밝히고, 韓奈麻 金用行이 지은 <我道和尚碑>의 기록과는 사뭇 다르다고 덧붙였다. 『삼국사기』의 기사를 보면,

(前略)....왕이 말하였다. “못 사람들의 말이 견고하여 이를 깨뜨릴 수가 없는데, 유독 너만 다른 말을 하니 양 쪽을 모두 따를 수는 없다.” 드디어 이차돈을 관리에게 넘겨 목을 베게 하니, 이차돈이 죽음에 임하여 말하였다. “나는 佛法을 위하여 刑을 당하는 것이니, 부처님께서 만약 신령스러움이 있다면 나의 죽음에 반드시 이상한 일이 있을 것이다.” 목을 베자 잘린 곳에서 피가 솟구쳤는데 그 색이 우윳빛처럼 희었다. 못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 다시는 불교를 헐뜯지 않았다.(後略)

이외에도 <순교비>⁶, 『海東高僧傳』 등이 참수 직후 백유의 용출과 함께 꽃비와 대지의 진동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차돈의 순교 배경에 대해 『삼국유사』, 『삼국사기』, 『해동고승전』 등에서 밝

| 5 권제 3 興法, ‘原宗興法 厭懼滅身’

히고 있듯이 불교를 공식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법흥왕과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조정과의 갈등에서 왕의 편에 선 이차돈이 불교를 공인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참형을 자청했고 ‘백유의 용출’이라는 극적인 상황을 통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2. 장례의 과정

불교의 공인을 위해 이적을 보이며 순교해 간 이차돈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졌을까. 백유의 용출이라는 이적이 있었지만 이차돈은 분명 죄수의 몸이었다. 그러나 그의 순교 이후 기록들을 보면 일반적인 죄수의 사후처리와는 다른 일정한 형식의 장례가 치러졌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

‘春宮에서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놀던 동무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돌아보고 月庭에서 소매를 마주하던 친구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 한 이별을 애석해 하여 棺을 쳐다보고 우는 소리는 마치 부모를 잃은 것과 같았다.’

『해동고승전』

‘임금과 신하,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위로는 하늘의 변괴를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舍人 이 법을 존중하여 목숨을 잃은 것을 슬퍼하며 서로 바라보고 슬피 울었다. 그리고는 遺體를 받들어 금강산에 장사하고 예배하였다.’

<순교비>

‘길에는 뿔소리가 이어졌고 우물과 방앗간에서는 발길을 멈추었다. 눈물을 흘리며 葬禮를 치루었다.’⁷

이상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이차돈의 장례는 사형당한 죄인에 대한 장례가

6 <순교비>에는 참형의 순간에 대한 두 가지 기록이 남아 있다. 비문에는 이차돈의 모자를 벗기고 그 손을 뒤로 묶은 다음 관아의 뜰로 끌고 갔다고 하였지만 부조상에는 관을 착용하고 손을 앞으로 겹쳐 모으고 있어 비문과 도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 남동신 교수는 한국미술사학회 50주년 기념 논문 「미술사의 과제와 역사학」에서 이러한 차이에 대해 ‘문자자료보다 더 이차돈의 순교 장면을 미화한 시각자료를 통해 신라불교사에서 승려들이 지니고 있었던 권위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차돈의 장례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실제 사건 기록과 이를 표현한 도상과의 차이는 이차돈의 순교를 더욱 장엄하게 미화하려는 당시 불교계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본다.

7 이근직, 『경주의 문화유산』상(경주박물관회, 1998, 3), pp. 393-397.

아닌 일반인에 준하는 혹은 그 보다는 더 격식을 갖춘 장례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동고승전』에서 ‘유체를 받들어 금강산에 장사를 지냈다’, 〈순교비〉는 ‘길에는 뗏소리가 이어졌고 우물과 방앗간에서는 발길을 멈추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차돈의 처형 장소에서부터 그의 埋葬地까지 긴 장례행렬이 있었고 이를 지켜보는 군중(조문객)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장례 행렬과 규모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삼국유사』 제 4권 意解 ‘圓光西學’ 조에서 640년 향년 99세를 일기로 皇隆寺에서 입적하자 국가에서 羽儀와 葬具를 내려 임금의 장례와 같이 郊外에 장사지냈다고 하였다. 이 당시 까지도 불교식 장례라고 하는 茶毘 즉 화장이 정착되지 않은 때라 승려라 할지라도 대부분 매장을 하였다.⁸

이차돈 순교 후 100여년이 지난 뒤 거행된 원광의 장례의식을 통해 이차돈의 장례 또한 그 같은 예에 준해 치러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죄수의 몸으로 참형을 당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광처럼 격식이 갖춰진 장엄한 장례식은 아니더라도 일반 백성과는 다른 장례의식과 조문객, 그리고 장례행렬 등이 구비되었던 규모와 격식을 갖춘 장례식이 치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3. 추모와 묘역의 성역화

이차돈의 순교이후 법흥·진흥왕의 출가, 그리고 흥륜사를 비롯한 국찰 규모의 사찰 건립으로 일시 폐지되었던 불교의 전법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 아래 이루어지면서 이차돈에 대한 당시의 평가는 곧 그의 추모로 이어졌고, 그를 기리는 사당(사찰)의 건립과 묘소에 대한 성역화가 이루어졌다.

〈순교비〉에서는 시신을 北山에 안장하고 西山에 사당을 세웠다고 그 사실을 간략하게 적고 있지만 『삼국유사』에서는 이를 비교적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차돈의 장례직후 內人들이⁹ 吉地를 골라 ‘刺楸寺’라는 절을 세웠고, 이후 헌덕왕 9년(817) 國統 惠隆과 法主 孝圓·金相郎, 大統 鹿風, 大書省 眞怒, 波珍滄 등이

⁸ 신라에서 승려의 장례의식으로 화장이 시작된 것은 7세기 중반 이후로 『삼국유사』 권제 4, ‘자장정물’에 慈藏 國統이 태백산에서 입적하자 화장하여 유골을 石穴에 안치했다는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후 경덕왕대인 8세기 중반에도 승려에 대한 장례가 여전히 매장방식을 고수하고 있음을 『삼국유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⁹ 여기서 內人은 순교 전 이차돈이 속인으로 재직 중 교분이 두터웠던 궁중 관리들로 보인다.

옛 무덤을 고치고 큰 碑를 세웠다. 또한 興輪寺의 永秀禪師가 이차돈의 묘에 禮佛을 할 香徒들을 모아 매월 5일에는 영혼의 妙願을 위해서 壇을 쌓고 法會를 열었으며, 村老들이 그의 忌日에 興輪寺에서 모임을 갖은 것은 물론 厭鬻을 비롯하여 我道, 惠宿, 安舍, 表訓, 蛇巴, 元曉, 惠空, 慈藏 등의 塑像을 봉안하여 예불하였다.¹⁰

이처럼 9세기 초에 이르러 갑자기 이차돈에 대한 추모불사를 벌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판독된 〈순교비〉에 그 답이 일부 남아 있다.¹¹

‘이 때 老魄이 채찍을 들고 배회하며, 읊 가에 이르러 옛 무덤을 바라보니, 그 가운데 한 무덤에서 幼魂이 홀연히 나왔다. 노백이 弔問하며 말하기를, “슬프구나! 그대여. 옛사람의 무덤을 단지 보다가 문득 해후하였는데, 꿈에 본 아들의 혼과 같구나.” 혼이 대답하기를, “너는 듣지도 못하였느냐. 옛날에 어떤 왕이 불법을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나는 염촉으로서 왕께 …” 혼이 그것을 듣고 … 이별하며 말하기를, “그대는 나와 더불어 … 하겠느냐.” … 혼이 말하기를, “가르침이 …”. (이하 마멸)’

현재 판독된 〈순교비〉말미에는 한 노인이 이차돈의 무덤가를 찾았다가 그의 영혼과 나눈 대화 내용으로 볼 때 순교 이후 29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차돈의 순교는 아득한 전설처럼 전해왔고 그의 무덤은 돌보는 이 없이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차돈의 추모불사와 〈순교비〉의 건립은 이때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 당시 불교계의 반성과 함께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국유사』나 〈순교비〉와는 달리 〈사적비〉에서는 이차돈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찰로 白聿寺를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순교비〉에서도 정확한 사찰명을 밝히지 않고 단지 사당을 세웠다고 했으며, 그보다 후에 기록된 『삼국유사』에서는 자추사라고 밝히고 있다가 1655년에 제작된 〈사적비〉에서 白聿寺라 하여 자추사에 대한 실체에 혼선을 주고 있다

자추사의 건립 또한 『삼국유사』에서 이차돈 처형 직후 내인들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신라 내에 그를 추모할 사찰을 건립할 만큼 불교의 세가 왕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미뤄 볼 때 자추사는 사찰이라기 보다는 〈순

¹⁰ 『삼국유사』 권제3, 興法 第三, 東京興輪寺金堂十聖.

¹¹ 이근직, 앞의 책, pp. 393-398.

교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당의 성격이 강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국유사』에서는 法興王이 527년에 異次頓이 순교한 이 해에 朗智法師가 靈鷲山 法場을 열었고, 그로부터 8년 뒤인 법흥왕 22년(535)에 天鏡林의 나무를 대대적으로 베어 공사를 시작해 進興王 5년(544)에 洪禪사를 완공했다. 527년 南地법사가 영취산에서 法場을 열었다는 것은 이미 신라왕경 외곽에는 불교포교가 활발히 이루어진 상태로 이는 景南 嶺주 천전리 암각화에서 발견된 일련의 명문을¹²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보면 이차돈의 추모사당 건립 시기는 그가 순교한 뒤 본격적인 洪禪사 건축이 시작되던 535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추사 건립이후 817년에 이르러서는 國統 惠隆과 法主 孝圓, 金相郎, 金癡 등에 의한 국가적인 묘역의 성역화 외에도 민간차원에서 洪禪사의 영수선사 등에 의한 불단 건축과 추모법회가 이루어졌다. 이같은 민간의 추모사업은 대각국사와 같이 개인적인 참배 외에도 『해동고승전』을 쓴 각훈이 활동하던 13세기에도 이어져 그가 당시 금강산에 올라 이차돈의 묘와 비를 찾았을 때 그곳에 모인 山人들이 이차돈의 기일을 맞아 음복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¹³

그렇다면 13세기까지도 이어져왔던 이차돈의 추모사업은 언제 중단이 되었고 그 묘역과 사당은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 13세기 초반까지 남아있었던 이차돈의 사당은 아마도 1238년 몽고의 침략으로 皇統사 구충탑이 소실되고 景주가 초토화될 때 함께 사라져 지금까지도 그 자취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14세기 후반까지 지속된 왜구의 약탈 등 전란으로 인해 경주지역의 불교신앙 기반이 파괴되면서 추모법회와 사당의 복구는 영영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몽고 침략이후 고려말 경주의 상황에 대해 석재 박효수(?~1337)는 경주 백률사를 찾아 지은 시를 통해 ‘거주하고 있는 스님들 오직 둘 셋이니 누가 香花의 주인공이고.(중략) 큰 저택과 궁들이 전란 뒤에 채마밭이 되었구나.’ 라고¹⁴ 하였다.

또한 『東京雜記』 권2에서는 1378년 鈴平君 相國 尹承順(?~1392)이 백률사를 증건할 당시에 이미 심하게 퇴락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당시 시대별 인구 변화를 통해서도 몽고 침략이후 이차돈의 추모법회 등이 사라진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신라의 전성기 때는 경주에 17만8천936호가 있었지만 신라가 멸망한 이후 12세기에는 1만호,¹⁵ 몽고란과 왜구의 약탈이 심했던 고려 말을 지나 15세기 초에는 1,552호에 이를 정도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다는¹⁶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III. 염축사인의 廟와 塚¹⁷

1. 묘(塚)의 조영과 복산의 위치

대각국사 의천은 그의 시 ‘염축사인묘’에서 이차돈의 사당을 참배하고 그 감회를 남겼으며 『삼국유사』, 『삼국사기』, 『해동고승전』을 비롯한 <순교비>에서도 모두 그를 장사 지내고 무덤과 사당을 만들어 추모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의 사당은 고사하고 무덤조차 그 위치를 파악할 길이 없다.

이차돈의 遺體를 장사지낸 곳과 사당에 대해 『삼국유사』에서 ‘北山 西嶺에 장사지내고內人인들이 卜勝地를 정해 刺楸寺를 세웠다’ 고 하였다. 그러면서 『삼국유사』의 저자인 一然은 이차돈의 머리가 떨어진 곳에 장사를 지냈다는 향전을 인용하면서 ‘髑香墳禮佛結社文’에서는 왜 그 같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리사의 <사적비>에서는 참수된 머리가 스스로 공중을 날아 동문 밖 5리가 넘는 높은 봉우리 위에 떨어졌고, 그 곳에 白隸寺를 지었다고 했다. 또한 <순교비>는 복산에 장사를 서산에 사당을 세웠다고 했으며, 『海東高僧傳』에서는 참수된 머리가 날아가 도착한 곳이 금강산 정상이며 유체를 그곳에 장사지냈다고 하였다.

12 深津行徳, 「아세아에서 初期佛敎受用의 諸相」, 『신라문화』 20, (2002, 8), pp. 310-313. ‘乙卯年(535) 八月 四日聖法興大王節道人比丘僧安及以沙彌僧首及至居智伐村衆士等見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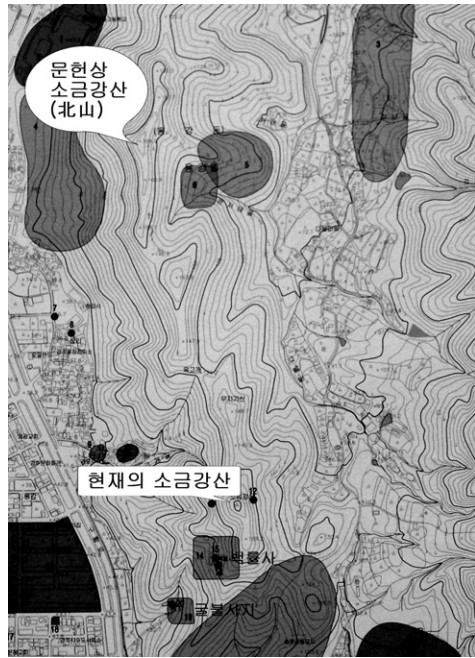
13 李能和, 『朝鮮佛敎通史』 上篇, p. 50. ‘予遊東都. 登金剛嶺. 見孤墳短碑. 慨然不能自止. 是日山人會食. 問其故. 即吾舍人諱日也.’

14 박효수 : 고려 충숙왕 때의 문신, ‘居僧推兩三孰爲香火主(중략) 甲第與中宮亂後成野圃’.

15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1권 慶尙道, 鄭知常의 詩.

16 尹龍巖, 『高麗對蒙抗爭史研究』(一志社, 1991), pp. 78-81.

17 『삼국유사』에서 무덤과 관련된 ‘墳, 塚, 墓’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墳은 왕릉급의 묘를, 塚은 관료나 승려, 墓는 무덤의 일반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광법사의 경우에는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례가 왕의 禮에 따라 행해져 ‘墳’을 사용하였다.



도 3

도 3 문헌상 나타난 북산의 위치, 『경주문화유적지도』

여러 문헌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실은 북산 즉 소금강산에 이차돈의 무덤을 만들고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사당을 세웠다는 것이다.

『海東高僧傳』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차돈의 묘와 사당의 위치를 추정해보면 그의 사당은 묘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묘는 소금강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삼국유사』에서는 北山の西嶺에 장사를 지냈다면 보다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금강산 즉 북산의 위치는 어디로 비정하느냐에 따라 이차돈의 묘역 위치는 더욱 확인해 질 것이다.

북산의 위치에 대해 『삼국유사』卷第一, 新羅 始祖 赫居世王 條에서 金山 加里村이 있었던 곳으로¹⁸ 북산의 위치가 금강산 백률사의 북쪽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권3 백률사 條에서는 ‘계림의 북쪽 산을 金剛嶺이라 한다. 산의 남쪽에는 백률사가 있다’¹⁹ 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백률사의 위치를 근거로 북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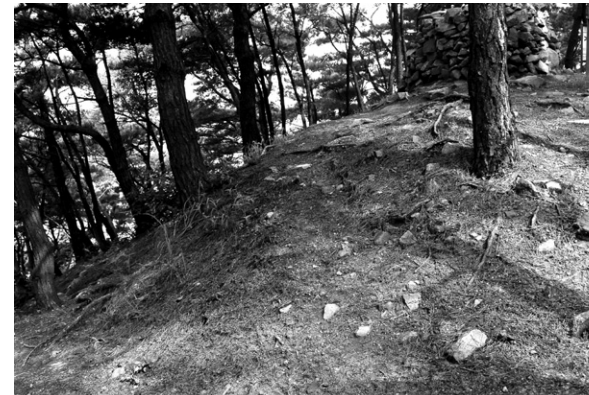
위치 확인해 보면(도 3)에서와 같이 백률사 동쪽 인근의 소금강산이라고 불리는 고지가 아닌 이보다 1km가량 북쪽에 있는 168.5고지가 바로 北山, 즉 金剛山, 金剛嶺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근까지의 고고학적 자료에서도²⁰ 이차돈의 묘와 사당의 위치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필자가 지난 2001년 이후 최근까지의 답사와 이 논고에 등장하는 문헌자료 등을 종합하여 그 위치를 비정한 결과, 도 3 지도에 표시된 곳이 이차돈의 묘역으로 가장 유력하다.

2. 추정 묘역 출토유물의 고찰

이차돈 묘역으로 추정되는 곳은 현재 등산로와 함께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있어 봉분의 원형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삼국유사』에서 ‘營壇作梵’ 하였다는²¹

18 『海東高僧傳』 ‘五曰金山加里村 今金剛山栢栗寺之北山也’
 19 『삼국유사』卷第3 ‘鷄林之北岳曰金剛嶺. 山之陽有栢栗寺.’
 20 경주박물관·경주시, 『경주문화유적분포지도』(2008, 11).
 21 『삼국유사』 권3 興法條, ‘興輪寺永秀禪師 結湊斯塚禮佛之香徒 每月五日 爲魂之妙願 營壇作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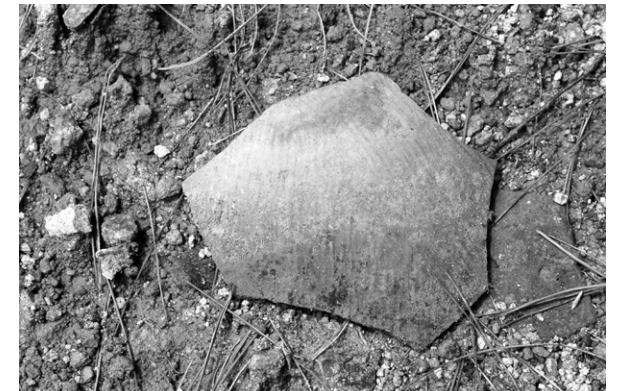
도 4



도 5



도 6



도 7

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

도 4에서와 같이 묘역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잡석의 석축 흔적과 함께 각종 瓦 搏片과 토기편 등을 확인 할 수 있다(도 5, 6, 7). 이곳에서 출토되는 토기와 瓦 搏片은 헌덕왕 9년(817) 8월 5일 興輪寺의 永秀禪師와 禮佛 香徒들이 이차돈의 무덤에서 그를 추모하는 法會를 열었을 때 쌓은 壇의 흔적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필자가 2010년 8월 19일 현장 답사과정에서 높이 8cm 크기의 塑造 小塔 1기를 수습하였다. 이 소탑은 원뿔형으로 4층의 옥계와 상륜까지 구비하고 있다. 옥계는 손으로 흙을 눌러 기왓골을 표현하여 圓堂形 목담을 본뜬 것으로 보인다(도 8-1, 2). 발견된 소탑은 이차돈의 무덤에서 興輪寺의 永秀禪師와 禮佛 香徒들이 이차돈을 추모하는 法會 때 사용한 儀式俱 혹은 헌덕왕 9년에 國統 惠隆 등

도 4 경주 소금강산내 추정 묘역 전경

도 5 추정묘역에 산재한 전돌편

도 6 추정묘역에 산재한 기와편

도 7 추정묘역에 산재한 토기편



도 8-1



도 8-2

도 8-1
소조 소탑의 출토 당시 모습

도 8-2
추정 묘역에서 출토된 소조 소탑

이 이차돈의 무덤을 改築하면서 埋納한 부장품 등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소탑은 신라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인 방형 구조가 아니라 원뿔형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작법의식 때 사용되는 다라니를 넣을 수 있는 孔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²² 이 소탑과 같은 형태의 탑이 현재 백제, 고구려 지역에서도 확인되나 있지만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납입한 法舍利로서의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향후 이 같은 형태의 소탑 용도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어야겠지만 소탑 발견 장소에서 여하한 양식의 塔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法舍利보다는 다른 의식 등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永秀禪師가 이차돈의 묘역에서 행했던 법회에 사용하였던 ‘壇’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삼국유사』 권제2 ‘文武王法敏’條에서 사천왕사의 창건과 문두루비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彩帛營寺草構五方神像’이라 한 것으로 보아 營壇과 營寺는 創寺의 개념이 아니라 임시적인 건조물의 건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영수선사 등이 營壇作梵을 하였다는 것은 재를 올릴 수 있는 塼 등을 이용한

22 井內功, 「백제의 나발형식 토제소탑」, 『백제문화』 12(1979), pp. 131-136.
石田茂作, 「土塔に就いて」, 『고고학잡지』 17권 6호(1927. 6), pp. 413-434.
원추형 토제 소탑은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원추형 토제 소탑의 특징은 그 외형 외에 방형소탑에서 보이는 다라니를 넣을 수 있는 孔이 보이지 않고 그 흔적만 남아 있는 예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佛壇에서 佛供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수선사 등이 향도를 모아 매월 5일 묘역에서 ‘營壇作梵’을 하였다는 것은 범당과 같은 건조물의 실내가 아닌 옥외에서 봉행한 일종의 ‘野壇法席’으로 보인다.²³

향후 이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이 진행된다면 전제하여 추정할 수 있는 이차돈의 봉분 구조는 그의 입멸연대를 고려해 볼 때 6세기경 고분양식인 돌무지덧널무덤일 가능성이 높아 발굴이 이루어질 경우 그 결과가 주목된다.²⁴

3. 사당의 성격과 위치 비정

소금강산 정상에 있는 묘와 함께 사당 또한 묘역 인근에 자리 잡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순교비>에서는 ‘북산에 장사를 지내고 서산에 사당을 세웠다’고 했으며, 『삼국유사』에서는 북산 西嶺에 장례를 치르고 卜勝地에 지추사를 세웠다고 했다.

사당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로 ‘西山’ 그리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에 정해진 북승지가 등장하지만 묘역 그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단 필자가 추정하고 있는 곳을 이차돈의 무덤으로 전제한다면 그 위치는 <순교비>에서 ‘立廟西山’이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묘역 서쪽의 소금강산 일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西山’이라는 지명이다.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 이차돈 묘의 인근 서쪽에 있는 산이나 산기슭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西岳을 지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묘의 위치만 가지고 사당의 위치를 비정하기에는 문제가 따른다. 『삼국유사』 권제 1 ‘김유신’ 조에서 김유신의 능이 西山 毛只寺 북쪽에 있다고 한 예와 권제 5, ‘金現感虎’ 조에서 김현과 정을

23 최현, 「眞鑑禪師의 梵唄에 관한 既存 研究 批判」, 『韓國民族文化』 15(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硏究會), pp. 235-237.
여기서 ‘作梵’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에 범패 作法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남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대공탑비>의 범패 관련 기록에서는 진감국사가 唐에서 귀국한 830년 이후 쌍계사에 머물면서 범패를 널리 전파하였다고 했지만 ‘雅善梵唄金玉其音側調飛聲爽快. 哀婉能使諸天歡喜永於遠地流傳學者滿堂誨之不倦至今東國習魚山之妙者競如掩鼻效玉泉餘響豈非以聲聞度之之化乎禪師泥洹當’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진감국사이전에도 신라에서 범패가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24 이 원형 석축의 규모는 동서 8-9m, 남북 11m 가량으로, 이 곳에서 발견되는 기와의 두께는 0.5-1.5cm 크기이며 무문과 격자문의 문양이 남아 있다. 또한 전돌의 두께는 5-6cm로 대부분 無文이다. 한편 이차돈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이곳에는 추정 무덤을 종점으로 남쪽으로 폭 6m 이상의 도로로 추정되는 능선이 이어져 있으며 그 중간에는 넓은 평지가 전개되어 있어 과거 이차돈의 무덤에 참배하고자 뛰어 놓은 길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추정된다.

통한 처녀(호랑이)의 집이 西山기슭에 있었다는 기사는 <순교비>에서 ‘葬屍北山立廟西山’ 이라고 하였다고 서산이 단순히 묘역 서쪽 인근의 산이나 지역을 지칭한다고만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삼국유사』에서 묘역 서쪽에 사당(자추사)을 세웠다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卜勝地에 자추사를 세웠다고 한 것도 간과 할 수 없는 점이다.

그렇다면 『삼국유사』에서 서산의 위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毛只寺를²⁵ 확인하면 정확한 위치가 규명되겠지만 그나마도 현재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으며, 『삼국사기』에서는 경덕왕의 능이 毛祇寺²⁶ 西岵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이차돈의 추모사찰 즉 사당은 그 위치가 서산의 해석에 따라 소금강산 일원 혹은 서악 즉 선도산 일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홍륜사 창건과 관련하여 이차돈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의 사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에서는 鄉傳을 인용하며 이차돈의 기일에 홍륜사에서 그를 추모하는 모임을 가졌다고²⁷ 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차돈의 사당은 그의 위패를 모신 소규모의 건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IV. 이차돈 순교성지의 제문제

1. 백률사

몽고의 침략으로 경주가 초토화되면서 사라졌을 것으로 보이는 이차돈의 묘와 사당은 1655년 건립된 경북 선산 도리사의 <아도화상사적비>에서 다시 언급되기 전까지 그 존재를 알 수 없었다.

이후 李彦迪의 『晦齋集』(1575년刊)²⁸, 金時習의 『梅月堂集』(1583년刊)²⁹, 洪聖民의 『拙翁集』(1631년刊)³⁰, 吳翹의 『天波集』(1646년刊)³¹ 등 조선 시대 간행된 각종 문헌과 문집에서 백률사와 관련된 시와 산문이 등장하지만 이 사찰과 이차돈

25 『삼국유사』권제 1, 「김유신」조에서 김유신의 능이 서산 毛只寺의 북쪽에 東으로 향해 뻗은 봉우리에 있다고 하였다.

26 『삼국유사』에서는 頓只寺 서쪽 봉우리에 장사지낸 후 뒤에 楊長谷 가운데 이장하였다고 한다.

27 『삼국유사』, 鄉傳云 鄉老每當忌旦 設社會於興輪寺 則今月初五 乃舍人捐軀順法之最也.

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순교비>를 비롯하여 口傳 등이 당시에도 충분히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언급한 문헌에서는 모두 백률사의 풍광 등을 읊은 것이 대부분이고 이차돈의 순교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매월당 김시습은 용장사에 머물면서 홍륜사터를 찾아 읊은 시에서 이차돈과 홍륜사의 관계를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³² 백률사와 관련된 시에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는 백률사와 이차돈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1655년 경북 선산 도리사에 건립된 <아도화상사적비>에서 이차돈의 참수된 머리가 떨어진 곳에 절을 세우고 그 이름을 ‘白隸寺’라고³³ 했다는 기록을 통해 오랫동안 사라졌던 이차돈의 추모 사찰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

그렇지만 이보다 앞서 간행된 『삼국유사』塔像조 ‘백률사’ 편에서는 夫禮郎의 구출과 중국의 神匠이 衆生寺의 觀音塑像을 만들 때 함께 만든 불상과 부처님이 일찍이 忉利天에 올라갔다가 돌아와서 法堂에 들어갈 때 밟았던 돌 위의 발자국 설화만을 기록했을 뿐 이차돈과의 관련 사실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삼국유사』의 良志使錫조나 靈妙寺丈六조의 기술방식으로 볼 때 백률사가 이차돈의 추모 사당으로 건립된 사찰이었다면 그 사실을 栢栗寺조에서 언급하였을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였다.³⁴ 이는 많은 문헌과 구전을 최대한 인용하면서 저술했던 『삼국유사』에서 백률사조에 이차돈과의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은 이 절과

28 『晦齋集』, 「望栢栗寺有懷」, 蘭若遙看住翠微. 碧松脩竹轉依依. 人間有累難超脫. 仙賞年來志久違. 『한국문집총간』24(민족문화추진회, 1989).

「栢栗寺. 謝友人乘雪夜訪」, 雪山山夜喜君來. 把酒憑闌更快哉. 天地中間興無盡. 笑他王子到門迴. 日出雲收眼界開. 登樓對酌穩談懷. 休言騷客淡生活. 雪滿千峯酒滿杯.

29 『梅月堂集』, 「栢栗寺樓登眺」, 楡枌高低生白煙. 人家僧寺比相連. 水聲西逆市朝變. 山勢北虧文物遷. 昔氏祠邊空有月. 哀公陵畔自無田. 悠悠成敗皆如此. 秦得成周八百年. 『한국문집총간』13(민족문화추진회, 1989).

「栢栗寺參玉版師」, 吾聞玉版師. 善說諸法要. 人人飽禪悅. 道果期非遙. 栢栗在城北. 石路何迢迢. 松門實瀟瀟. 熱惱來旋消. 南方夏五月. 溽暑蠻煙焦. 結友數十輩. 參請離煩惱. 師言塵世人. 色味爲熏歎. 若欲離此苦. 先集我琳條. 萬尋陰汝體. 分賜均圭刀. 耐雪產清風. 細篩花月朝. 一丸沈痼痊. 二丸磊塊澆. 三丸吃不得. 唯覺兩腋風蕭蕭. 又有久鍊積功嬰兒在. 佐我玉皇胸宇寥. 多冠嵯峨作標準. 錦袍錯落盤黃鵠. 鹽梅調鼎已多時. 蘇汝下民飢渴腫. 既到此間……

30 『한국문집총간』46, 「拙翁集」, 「栢栗寺樓韻」. ‘來倚新羅古寺樓. 金銀佳氣冷千秋. 山川索莫天將老. 啼鳥斜陽也自愁.’

31 『한국문집총간』95, 『天波集』, 「遊玉山書院記」. 金龜山西厓之水曰西川. 東厓之水曰北川. 皆拱抱月城. 合流於金藏臺之下. 北距百餘里. 入于江. 朝于東海. 自北川過栢栗寺. 亦羅代名利. 載興地勝覽. 自栢栗寺西北行. 再渡金藏臺下流.

32 『梅月堂集』, 「遊金鰲錄-興輪寺址」. ‘麥秀漸漸擁故墟. 舍人功業竟何居. 至今鷄犬喧齋粥. 便是當時誦佛書.’

33 조선총독부, 『조선금석총람』하, <도리사 아도화상 사적비>. ‘曰佛若有神吾死必有異 及斬血白如乳頭自飛空 墜于東門外五里強高峰上 和尚從放大光寶輝通天王 及諸臣異之遂立寺其地名以白隸’.

이차돈과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밝혀 놓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자추사 그리고 백률사

1980년대 이후 발간된 경주 및 신라 문화유산관련 자료 중 대부분이 백률사와 자추사를 동일 사찰로 간주하고 있다.³⁵ 그 이전에 발간된 자료 중에는 백률사를 이차돈 순교성지로 연관 짓는 예나 자추사를 백률사와 동일한 사찰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자추사와 백률사를 동일한 사찰로 여기게 되었는가는 도리사의 <사적비>에 이차돈의 추모 사찰을 白率寺 밝힌 것과 자추사에 대한 사찰명을 이두식으로 임의로 해석한데 따른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와 관련 『삼국유사』에 등장하고 있는 예를 들면 <표 1>에서와 같이 사찰명을 이두식으로 해석하거나 표기하는 예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사찰명 유래

원사찰명	사찰명 유래	출전
皇龍寺	용궁 남쪽에 대궐을 지으려다 황룡이 나타나 그곳에 절을 짓고 黃龍寺라 함	권제3. 塔像
敏藏寺	敏藏角干이 자기 집을 회사하여 창건	//
天龍寺	天女와 龍女라는 딸을 위해 창건	//
鑿藏寺	태종무열왕이 삼국을 통일한 후 병기와 투구를 골짜기 속에 감추었기 때문	//
靈鷲寺	忠元公이 신령한 매의 행동에 감동하여 屈井縣 관청을 옮기고 창건	//
有德寺	大夫角干 崔有德이 자기집을 회사하여 지로 만들	//
金光寺	용왕이 보시한 황금으로 탑과 불상을 장식하니 유난히 광채가 빛남	권제 5 神呪
虎願寺	金現이 자기를 도와 희생한 호랑이의 은혜를 갚기위해 창건	// 感通
避里寺 (念佛寺)	마을 이름에서 비롯된 피리사가 念佛師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念佛寺로 개명	// 避隱
讓避寺	讓避里라는 마을 이름에서 유래	//

34 묘사 외에도 義解撰, 圓光西學 ‘唐傳云告寂皇隆寺未詳其地疑皇龍之說也如芬皇作王芬寺之例也’, 卷第五 避隱 第八 ‘包山二聖’ ‘檜音般鄉云雨木音牒鄉云加乙木’, 念佛師 ‘住避里寺改名念佛寺旁亦有寺名讓避 因村得名’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찰명의 謄記나 한문으로 기록된 명칭의 우리말 번역, 사찰명의 改名의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자추사가 백률사로 개명되었다는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35 진흥섭, 『경주의 고적』(동문관, 1957, 10), pp. 72-73. ‘이차돈이 순교할 당시에 그 머리가 날아간 자리에 자추사라는 절을 지었다하니 그도 백률사에서 머지 않은 곳으로 생각된다. (중략) 육면석당도 원래는 백률사에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자추사를 백률사와 동일한 사찰로 여기는 해석 가운데 경주국립박물관의 <순교비> 설명문에는 ‘신라 사람들은 이차돈의 머리가 떨어진 곳에 절을 세우고 刺楸寺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시(刺)가 있는 호두(楸)는 곧 밤이니, 자추사가 곧 백률사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 해설대로 라면 ‘栗寺’가 되어야 하는데 잣을 뜻하는 ‘栢’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시키고 임의로 해석하면서 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경주지역 향토사학계 등에서 백률사와 자추사를 동일한 사찰로 보는 예를 보면 자추사가 백률사로 개칭된 것이라기 보다는 혼용되었을 것이라 보고 刺는 잣(栢)의音を 한자로 적은 것이며 楸는 밤(栗)의 일종으로 栗과 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刺楸는 栢栗과 같은 것으로 표기할 때 빌린 漢字가 달라진 것 뿐이라고 한다.³⁶

이같은 자추사의 해석과 이를 백률사와 연결시키는 논리는 현재 거의 모든 저작에 인용되어 기정사실로 인정되고 있지만 <표 1>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사찰명을 이두식으로 해석하여 개칭 혹은 동일시하는 예는 없었다. 『삼국유사』 권제 4 元曉不羈에서는 蚊川橋에 대해 속언에 沙川, 牟川이라 한다고 주를 달아 부연하고 있으며³⁷, 권제 5 包山二聖에서는 ‘檜은 음이 般인데 이는 피나무를 말하고, 楸(木+牒)은 음이 牒인데 이는 떡갈나무를 말한다고 했다.³⁸ 이 같은 『삼국유사』의 기술 방식으로 볼 때 자추사와 백률사를 동일한 사찰로 보고 이를 이두식 해석방법을 사용하여 해석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추사를 백률사로 여기는 것은 <순교비>가 백률사 인근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추사는 어떤 의미로 작명이 되었는가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찰명 그 자체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즉 <표 1>에 등장하는 예처럼 자추사는 그 이름에 이미 이차돈의 순교나 그 葬地를 의미하는 상징성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刺와 楸는 각각 독립된 나무를 상징하고 있는 한자로 이를 해석해보면 刺

36 權五燦(監修 韓炳三), 『신라의 빛』, 경주시(1980, 2), p. 192. 여기서는 또 ‘屠柴夫가 荒宗이 되고 金大城이 金大正으로 되는 것은 신라에서는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삼국유사』의 백률사조에서 거기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당연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37 沙川俗云年川又蚊川又橋名楸橋也.

38 檜音般鄉云雨木音牒鄉云加乙木.



도 9

도 9
자목(구지뽕나무)의 자른 줄기에서 흘러나오는 하얀 수액



도 10

도 10
추목(가래나무)과 그 열매

木과 楸木으로 그 의미를 설정할 수 있다. 자목은 구지뽕나무, 추목은 가래나무다. 자목의 특징 중 이차돈의 순교와 연관되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이 나무의 잎이나 줄기를 자르면 하얀 액체가 용출된다는 것과 추목은 무덤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이다(도 9, 10).³⁹

또한 刺楸라는 단어 자체는 이미 또 다른 나무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음나무이다. 음나무는 약재의 하나로 줄기 전체에 가시가 돋아 있어 민간에서는 귀신을 쫓는 부적으로도 사용하며 굵은 목재는 발우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추를 하나의 단어로 연결 짓기보다는 각각 분리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였는데 刺는 이차돈 순교를 대표하는 白乳의 용출을 상징하고 있으며, 楸는 그의 무덤으로 해석할 수 있다.⁴⁰ 따라서 자추시는 흰 피를 뿌린 이의 무덤에 세워진 사찰이라는 뜻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같은 여러 추론을 통해 자추사와 금강산의 유래를 유추해보았지만 舍人廟 혹은 刺楸寺 그리고 白聿寺(栢栗寺)로 변해간 이차돈의 추모사찰의 진실은 무엇일까.

『삼국유사』에서는 백률사와 자추사가 분명 다른 사찰임을 밝혀 놓고 있다. 그

39 허복구 외 지음, 『재미있는 우리 나무 이름의 유래를 찾아서』(중앙생활사, 2004, 6), p. 21. '옛 사람들은 조상의 묘가 있는 곳을 楸下, 산소를 찾는 일을 楸行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楸木은 무덤가가 된다. 실제로 옛 사람들은 무덤가에 가래나무를 심어 가꾸었다.' 고 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蔡仁範墓誌銘>(1024년)에서도 '……先塋之處松楸則拂漢……'이라하여 선영의 묘소에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심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0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차돈의 묘역에 刺木이 울창한 지역으로 그곳에 무덤을 써 刺楸寺라는 이름이 지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마을 이름이 사찰명이 된 예를 따른 것이다. 지금도 추정 묘역 인근마을에는 몇 그루의 구지뽕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림에도 불구하고 자추사가 백률사로 둔갑하게 된 원인은 현재로서는 경북 선산 도리사의 <아도화상사적비>에 그 열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아도화상사적비>에 이차돈의 추모를 위해 白聿寺를 창건했다고 하였다.

비문의 내용은 『삼국유사』 등의 기록을 인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독 추모사찰에 대해서만큼은 白聿寺로 적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차돈 참수 당시 白乳의 이적 모습이 마치 붓대에 매달린 붓끝과 같아 흰 붓대(白聿)로 보고 同音異語로 당시 소금강산에 남았던 栢栗寺를 이차돈의 추모사찰로 착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순교비>에서 '立廟西山'이라고 한 사실과 대각국사의 시에서 이차돈의 추모공간을 사찰이 아닌 묘(사당)라고 한 점을 상기해 본다면 자추사는 이차돈을 기리기 위한 사당이며 백률사는 별개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 진다.

3. <이차돈 순교비>의 출토 전말

도리사 <사적비> 외에 다른 조선시대의 백률사 관련 기록에서는 이 절과 이차돈과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후 일제 강점기와 근래에 백률사를 기행한 신문기사에서도⁴¹ 이차돈과 백률사와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삼국유사』에서도 國統 惠隆 등이 이차돈의 무덤을 보수하고 비를 세웠다고⁴² 했을 뿐 비를 세웠던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백률사를 이차돈의 순교성지로 比定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동고승전』 「法空條」에서는 금강령에 이차돈의 묘와 비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⁴³ 특히 이 기사에서 이차돈의 묘와 비가 있었던 곳을 금강령이라고 밝히면서 백률사와의 관계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의문이다. 만약 <순교비>가 백률사 경내에 세워졌다면 그 위치를 밝혔을 것이고 묘 또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삼국유사』 「백률사」條에서 이 사찰의 위치

41 '紙上 修學旅行-京釜線編 慶州行', 『동아일보』, 1939. 7. 9, 4면 '신라마에담상-경주 백률사를 중심으로', 박일훈, 『동아일보』, 1957. 10. 30, 4면

42 <순교비>의 조성연대에 대해 817년과 818년 두 가지 설이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서 元和 12년(817)에 國統 惠隆 등이 이차돈의 무덤을 보수하고 큰 碑를 세웠다고 했다. 그러나 <순교비>에서는 그보다 1년 늦은 818년에 건립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무덤 보수와 비의 건립 기간이 1년 가량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차돈의 묘역에 대한 성역화사업이 817년 시작되어 818년(<순교비>)의 건립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어 <순교비>에서 밝힌 818년이 이 비의 건립연대가 된다.

43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上篇, p. 50. '登金剛嶺 見孤墳短碑 慨然不能自止 是日山人會食 問其故 卽吾舍人諱日也'



도 11

도 11
1914년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이전되기 직전의 <이차돈순교비>(국립경주박물관, 「다시보는 경주와 박물관」, 1993)

를 금강령의 남쪽이라고 한 점은 금강령과 백률사의 거리감을 충분히 밝히고 있다. 즉 각훈이 금강령에 올라 이차돈의 묘와 비를 본 곳은 백률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뜻이다.

문제의 핵심인 <순교비>는 어떻게 백률사에서 발견이 되었던 것인가.

<순교비>와 관련된 근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1906년 일본인 今西龍(이마니시 류)가 『해동금석원』 등의 기사를 근거로 백률사를 찾아 이 비를 찾다가 실패하고 돌아간 이후⁴⁴

1910년대 초에 재발견되어 1914년 국립경주

박물관(경주고적보존회)으로 이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마니시가 <순교비>의 증거로 든 『해동금석원』 등의 제작된 연대를 고려한다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는 그 존재가 단편적이거나 세상에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시 이 비의 존재와 행방이 묘연해진 가운데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던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大口喜六(오구치 기로쿠), 淺見倫太郎(아사미 린타로), 鮎貝房之進(아유카이 후사노신) 등 일본인에 의해 그 실체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순교비>가 1914년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이전되기 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① 백률사 불전 맞은 편 산중 담불숙(오구치) ② 백률사 문전 가시나무 숲(아유카이)⁴⁵ ③ 백률사 부근 숲 속(아사미)⁴⁶ ④ 굴불사지 사면석불 전방 100m(高橋健自(타카하시 켄지)·石田茂作(이시다 모사쿠))⁴⁷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도 11).

44 今西龍, 「慶州栢栗寺六面石幢刻文」, 『考古學雜誌』8-11(日本考古學會, 1918), p. 49. 이마니시류가 참조한 『해동금석원』은 그가 경주를 찾았던 시기 등을 고려할 때 1922년에 간행된 『重校海東金石苑』보다는 1881년 간본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45 大口喜六, 「朝鮮慶州栢栗寺六面石幢に就て」, 『考古學雜誌』9-1(日本考古學會, 1918), pp. 60-61. 大口喜六에 따르면 이차돈순교비는 경주고적보존회 회원들이 유적 탐사과정에서 諸鹿夾雄 외 1명이 발견한 것으로 그 위치는 백률사 佛殿정면 맞은 편 山中의 담불숙이었다고 한다. 또한 鮎貝房之進은 『朝鮮及滿洲』60호(1912, 10)에서 경주에 남아 있는 여러 신라 비석들이 湮滅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차돈비가 백률사 門前 가시나무 숲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46 淺見倫太郎, 「慶州遊錄」, 『朝鮮及滿洲』58호(朝鮮雜誌社, 1912, 9), p. 96. 淺見倫太郎는 1912년 8월 3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경주를 답사하면서 백률사에 들러 이차돈순교비를 탁본하여 원문을 얻은바 있는데, 이때 碑의 상태는 「寺傍に倒伏せる」였다고 하여 1914년 경주고적보존회로 이전되기 전까지 백률사 부근 숲속에 넘어져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인 1906년(明治 39) 이마니시가 백률사를 찾았을 당시에는 이 비석은 어디에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분명 이마니시는 『해동금석원』을 근거로 이 비가 백률사에 있음을 확인하고 찾아갔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되돌아와 『考古學雜誌』8-11호에 발견자와 관련 내용을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순교비>가 지금의 백률사 경내에 있었다면 주변의 도움(백률사 거주승 등)을 받아 충분히 그 실물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결국 <순교비>는 현재의 백률사 경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27년 발행된 『滿鮮考古行脚』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굴불사지 사면석불 전방 100여미터(一町)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었고 이로 인해 이마니시 류는 『해동금석원』을 근거로 찾은 백률사에서 <순교비>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920~30년대까지의 자료에서는 대체로 <순교비>와 백률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여하지 않다가 1940년대 들어서면서 <순교비>가 백률사에 세워져다는 설명이 부가 되면서 이후 거의 모든 자료에서 이를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⁴⁸

『滿鮮考古行脚』에서처럼 구체적인 장소 언급이 있었지만 <순교비>가 발견된 곳이 본래 건립 장소인지 아니면 시대와 의도를 알 수 없는 어떤 이유에서 이곳으로 이전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지만 조선 말기 사찰 경내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었던 상황에서 순교비가 발견된 장소가 백률사 근처이므로⁴⁹ 출토지 및 건립지를 백률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15세기 중후반에 김시습은 흥륜사터에서 읊은 시에서 이 절이 이차돈의 순교로 말미암아 창건되었음을 알고 ‘舍人の 功業이 결국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며 한탄하는데서 흥륜사와 백률사가 이차돈과 어떠한 관련이 있고 없는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률사는 이차돈 순교성지이고, 그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자추사로 공인되고 있는 상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과제다.

47 高橋健自·石田茂作, 『滿鮮考古行脚』(雄山閣, 1927, 12).

48 中村亮平, 『朝鮮 慶州の美術』, (改造社, 1940, 2), pp. 166-167.

49 『삼국유사』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 조에서 경덕왕이 굴불사를 창건하게 된 연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의 굴불사지 입구에 해당하는 지역은 백률사의 寺域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백률사 境内地 혹은 寺域도 현재의 백률사 가람이 배치된 공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경주 남산이나 시내에서 발견되는 폐사지의 가람배치 예를 보더라도 현재의 백률사 입구를 이 사찰의 경내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V. 맺음말

이차돈의 묘로 추정되는 장소와 추가적인 관련 문헌의 발굴이 큰 과제로 남아 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최소한 자추사와 백률사와의 관련성에 대한 객관적인 고찰을 시도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둔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土製小塔>과 각종 토기와 瓦博類는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장소가 이차돈의 묘역일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유력한 증거물이라고 본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종합·정리해보면 먼저 자추사라는 사찰명의 유래가 기존의 설과는 달리 刺木과 楸木이라는 두 나무의 특성을 결합한 작명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백유의 용출처럼 하얀 액체가 흘러나오는 자목의 특성과 추목이 무덤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점이 자추사라는 사찰명이 생기게 된 근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삼국유사』 등 여러 문헌기록을 종합해 볼 때 吏讀式 사찰명이 없다는 것도 백률사가 곧 자추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자추사 혹은 이차돈의 사당에 대한 실제에 접근을 해보았지만 위치 비정에는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현재의 경주시 내 어느 곳에 있을 자추사 혹은 이차돈의 사당은 향후 추가 자료의 발굴과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기대한다.

고려 중기까지 존속했던 이차돈의 묘에 대해 그동안 무관심과 안일함으로 일관해 왔던 조사와 연구는 신라불교의 뿌리가 되는 유적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백률사 부근에서 발견되었다는 <순교비>의 최초 건립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는다. 이는 최근까지도 백률사(혹은 백률사 인근)에서 <순교비>가 발견되었다가 아닌 세워졌다가 정설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즉 백률사 인근 굴불사지의 경우 『삼국유사』에서 굴불사라는 사찰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1980년대 발굴 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제작된 <掘石寺銘 金鼓>가 출토된 바 있다. 즉 굴불사지는 백률사에서 불과 100여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백률사 경내지의 경계에 대한 의문에 해답을 주는 열쇠가 된다.

또한 최근(2010. 6)에 발견된 <문무대왕비>편의 경우 건립지가 사천왕사로 추정되고 있지만 발견된 장소는 경주시내 동부동의 한 가정집 마당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1914년 <순교비>가 발견된 장소는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래 있었던 곳으로부터 이전되어 방치되었던 곳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발견 장소를 건립 장소로 단정하는 문제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가 제기한 장소에 대한 발굴조사가 향후 실시된다면 1천여년을 잠들어 있던 이차돈의 묘역에 대한 성역화와 함께 절대연대를 가진 신라 고분의 발견으로 이어져 당시 분묘제도에 대한 새로운 자료의 출현도 기대된다.

*주제어(key words)

이차돈(異次頓, Ichadon), 백률사(栢栗寺, Baengnyulsa), 자추사(刺楸寺, Jachusa), 이차돈 순교비(異次頓殉教碑, Martyr monument of Ichadon), 아도화상사적비(阿道和尚事蹟碑, Monument of A-do monk), 삼국유사(三國遺事,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대각국사(大覺國師, National master Dae-gak), 토제소탑(土製小塔, Small clay stupa)

논문투고일 2011년 1월 25일

논문심사일 2011년 1월 31일

논문심사완료일 2011년 3월 10일

참고문헌

사료·경전

- 『三國遺事』
- 『三國史記』
- 『東文選』
- 『新增東國輿地勝覽』
- 『晦齋集』
- 『梅月堂集』
- 『拙翁集』
- 『天波集』
- 『朝鮮佛教通史』
- 〈이차돈순교비〉
- 〈아도화상사적비〉
- 〈蔡仁範墓誌銘〉

조사보고서·도록

- 국립경주박물관·경주시, 『경주유적지도』, 1997.
- 국립경주박물관, 『문자로 본 신라』, 2002. 9.
- 신라문화유산조사단, 『경주 용강동 고분군』, 2008. 2.

신문·잡지

- 「동아일보」, ‘紙上 修學旅行-京釜線編 慶州行’, 1939. 7. 9字.
- 「동아일보」, ‘신라마애탑상-경주 백률사를 중심으로’, 박일훈, 1957. 10. 30字.
- 淺見倫太郎, 「慶州遊錄」, 『朝鮮及滿洲』58, 1912. 9, 朝鮮雜誌社.
- 大口喜六, 「朝鮮慶州栢栗寺六面石幢に就て」, 『考古學雜誌』9-1 (1918. 7), 日本考古學會.

단행본

- 경주시사편찬위원회, 『경주시사』3, 2006. 12.
- 권오찬(監修 한병삼), 『신라의 빛』, 경주시, 1980. 2.
- 김영태, 『한국불교 금석문 고증』①, 민족사, 1992. 11.
- 김재석, 김기문, 『경주풍물지리지』, 보우문화재단, 1991. 8.

- 서금 著, 정용석·김종윤 譯, 『고려도경』, 움직이는 책, 1998. 9.
- 손대호, 『신라사화』, 선일사, 1950. 3.
- 월성군, 『신라의 얼』, 월성군, 1982. 11.
- 윤용혁,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1991.
- 이근직, 『경주의 문화유산』상, 경주박물관회, 1998. 3.
- 전덕재, 『신라왕경의 역사』, 새문사, 2009. 4.
- 진홍섭, 『경주의 고적』, 통문관, 1957. 10.
- 최상수, 『경주의 고적과 전설』, 대재각, 1954.
- 최용주, 『최용주와 함께 가는 경주여행』, 최용주유고집 발간위원회, 2000. 2.
- 허복구 외 지음, 『재미있는 우리 나무 이름의 유래를 찾아서』, 중앙생활사, 2004. 6.
- 황종찬, 『새천년의 미소』, 도서출판 하나로, 1998. 10.
- 高橋健自·石田茂作, 『滿鮮考古行脚』, 雄山閣, 1927. 12.
- 中村亮平, 『朝鮮 慶州の 美術』, 改造社, 1940. 2.

논저

- 도수희, 「獸鬮(異次頓)의 해독 문제」, 『국어학』32, 1998. 12.
- 이병도, 「신라의 불교 침투 과정과 이차돈의 순교」, 『성자 이차돈의 순교사상』, 이차돈선양회, 1985. 1.
- 이봉춘, 「홍륜사와 이차돈의 순교」, 『신라문화』20, 2002.
- 최헌, 「眞鑑禪師의 梵唄에 관한 既存 研究 批判」, 『韓國民族文化』15,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會, 2000.
- 한승훈, 「신라 중대 ‘아도화상비’의 건립」, 『금석문을 통한 신라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9.
- 深津行徳, 「아세아에서 初期佛教受用の 諸相」, 『신라문화』20, 2002. 8.
- 井内功, 「백제의 나발형식 토제소탑」, 『백제문화』12, 1979.
- 石田茂作, 「土塔に 就いて」, 『考古學雜誌』17권 6호, 1927. 6.
- 今西龍, 「慶州栢栗寺六面石幢刻文」, 『考古學雜誌』8-11, 日本考古學會, 1918.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신라불교 공인의 일등 공신인 순교자 이차돈의 유물과 유적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결과에 대한 오류와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문헌 고증을 통해 이차돈의 묘가 13세기까지 실존하고 있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위치를 비정할 수 있었다. 특히 이차돈 순교성지로 알려진 백률사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이 없이 묘비의 발견 장소로 둔갑되고 결국에는 이차돈을 추모하기 위해 세웠다는 ‘자추사’와 동일한 사찰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여 통용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그러나 『삼국유사』, 『해동고승전』 등의 문헌에서 백률사와의 관련성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사찰명의 무리한 吏讀式 해석이 이차돈의 순교유적지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자추사’라는 사찰명의 유래에 대해 기존의 이두식 해석이 아닌 사찰명을 구성하고 있는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 뜻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해 흰 액체를 분출하는 刺木, 즉 구지뽕나무와 무덤가를 상징하는 楸木, 즉 가래나무의 상징성이 자추사라는 사찰명의 유래가 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따라서 자추사는 별도로 존재했던 이차돈 추모사당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삼국유사』는 차제하더라도 조선 초 경주에서 승려생활을 했던 김시습의 『梅月堂集』에서 백률사와 이차돈의 순교로 건립된 흥륜사와 관련된 시 「柏栗寺樓登眺」, 「柏栗寺參玉版師」, 「遊金鰲錄-興輪寺址」에서 흥륜사가 이차돈의 순교로 창건되었음을 밝혔지만 백률사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백률사가 이차돈의 순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찰임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해동고승전』의 저자 각훈은 金剛嶺에 올라 이차돈의 묘와 비석을 보았고 그곳에서 이차돈의 忌日을 맞아 會食하는 山人들을 보았다는 기사와 『삼국유사』에서 밝히고 있는 금강령(금강산)의 위치를 대조해보면 이차돈의 묘와 비가 있는 곳은 백률사와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답사과정에서 발견된 <土製 小塔>과 각종 埴과 토기, 기와편을 통해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경주 용강동 근화여고 뒷산 정상 일대가 817년 흥륜사 永秀선사

등 향도들이 이차돈을 추모하는 법회를 봉행했던 장소로 이곳이 바로 이차돈의 무덤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차돈순교비>의 발견과 관련된 일련의 자료를 통해 <순교비>의 발견 장소가 건립 장소였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일제강점기 발행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한 결과 <순교비>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는 달리 백률사 경내가 아닌 인근의 숲 속에서 발견되었고 그 장소를 백률사 경내지로 보느냐하는 문제가 관건이었다. 그러나 백률사가 위치한 인근에는 굴불사 또한 연결 선상에 있어 <순교비> 발견 장소와 함께 건립지를 백률사 경내로 단정 짓는 것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비석이 다른 곳에서 이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상기해보면 <순교비>의 발견 장소 혹은 건립지를 백률사로 단정 짓는 일은 再考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차돈의 묘역 추정은 또 하나의 가설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던 이차돈의 무덤을 찾는 단초가 되어 성사의 묘역을 성역화 하는데 본 논문이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Abstract

Study of the Martyrs Ichadon remains and monument

Kim Taehyung
Lim(Life In the Museum)museum

This thesis has researched the errors and problems of existing study results about remains and monuments of the martyr Ichadon, solely credited for official recognition of Buddhism in Silla in various ways.

Ichadon's grave turns out to exist till 13th century and its location can also be presumed though the document investigation. Especially, regarding Baengnyulsa-temple, known as Ichadon's martyr site, it has been altered into the tombstone discovery site without objective investigation and finally it has been recognized as the same one as Jachusa-temple, which was built in remembrance of Ichadon-this has been prevalent conclusion and this problem has been examined.

However, in some literature such as 『Samguk Yusa(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Haedonggoseungjeon(Lives of Eminent Korean Monks)』, the un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emple name in Idu style(Korean phonetic system for reading Chinese characters) led to the distortion of Ichadon's martyr site in that Jachusa-temple was not related to Baengnyulsa-temple.

With regard to the origin of Jachusa-temple, the temple name would

originate from Jamok where the white liquid gushes out and the symbol of Gujipongnamoo(Cudrania tricuspidata) and Choomok, Garaenamoo-Juglans mandshurica, meaning nearby grave through the original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original chinese character, not the interpretation of Idu style. Thus, Jachusa-temple turns out to be the separate memorial shrine of Ichadon.

Furthermore, apart from 『Samguk Yusa』, in 『Maewoldangjip(The Collected Works of Maewoldang』 written by Kim Si-seup, a monk in Gyeongju of early Joseon Dynasty regarding the poem 「Baengnyulsa Noo Deung(The Landscape Overlooking the Tower of Baengnyulsa-temple」 related to 「Baengnyulsa and Baengnyulsacham Okpansa(Get Along with Okpan Monk of Baengnyulsa-temple」, 「YouGeomorok(Write Staying Mt.Geomosan-in Heungrunsa-temple site), Heungrunsa-temple was built due to Ichadon's martyrdom, but it was not related to Baengnyulsa-temple in that the poems did not refer to Baengnyul-temple. Baengnyulsa-temple is totally unrelated to Ichadon's martyrdom. Especially, compared to the article that Gak-hoon, the author of 『Haedonggoseungjeon』 saw the grave and gravestone of Ichadon climbing Mt.Geumgang and saw buddhist monks partaking of sacrificial(ritual) food and tea on the anniversary, regarding Geumgangryung(Mt.Geumgang) the grave and grave stone of Ichadon was far from Baengnyulsa-temple.

In addition, the possibility is that Youngsoo(Buddhist monk) Shrine in Heungrunsa-temple nearby the mountain at the back of Geunhwa girl's high school in Yonggangdong, Gyeongju would be Ichadon's grave where leaders held a Buddhist ceremony in memory of Ichadon in 817 through 〈Small Clay Stupa〉, bricks, pottery and tile, discovered during the field investigation.

Besides, through the series of data and the discovery of 〈Martyr Monument of Ichadon〉, it has been raised whether the discovery site of

〈Martyr Monument〉 was the establishment site. Based on the data during the colonial period of the imperial Japan, the main point is whether 〈Martyr Monument〉 was discover in the vicinity of woods, not within Baengnyulsa-temple and the site was within Baengnyulsa-temple or not contrary to the known. However, Gulbulsal-temple nearby Baengnyulsa-temple was in the adjacent area so it would be problematic to conclude that 〈Martyr Monument〉 was built within Baengnyulsa-temple. Especially, considering the possibility that the gravestone would be relocated from another place, it should be reconsidered that the discovery or establishment site of 〈Martyr Monument〉 was Baengnyulsa-temple.

Under the conditions that the archeological approach about the site this thesis suggested has not been done yet, another hypothesis can be formed. It is expected to be the foundation to discover Ichadon's grave left alone so far so that it can help to become sanctuary.